

# 근면·노력하는 정신을 키워라

## 의사가 들려주는 의대 이야기

의과대학시절 저는 도시 번두리의 가정의학병원에서 한 달 동안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본 뒤 너무나 당연하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하와이의 카우아이섬으로 결정했다. 그 아름다운 섬에서 자주 쓰고 듣는 말은 “쉽게 생각해”다. 거의 인사적으로 사용된다. “다음에 또 봐”가 아닌, “쉽게 생각해”. 그렇지만 예일 의대시절 의과장이 항상 강조했던 것은 “열심히 해”였고, 그것이 그의 인사였다. 노스웨스턴의 수련의과정에 들어갔을 때 역시 성형외과장도 보편적인 인사 대신 “열심히 해”라는 말을 하곤 했다. 상냥한 미소와 격려를 복돋는 목소리로 말이다. 연차가 높은 수련의가 되고 수석 수련의가 되는 과정에서 나 또한 후배들과 인턴들에게 “열심히 해”라는 말을 매일 아침 회진이 끝나고 헤어지기 전 인사처럼 건네게 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국의 의례적인 전통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모두가 열심히 하고 서로 복돋아주는 하나의 ‘문화’였다. 사실 열심히 하는 습관은 나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십대 때에 이미 형성되었던 습관이었기 때문이다.



들은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지만 자녀를 지원해주기 위해 계설 터였다. 나는 토요일에는 어머니가 하루 쉴 수 있게 아침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루종일 일을 했고 일요일에는 아버지가 쉴 수 있도록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지켰다. 이러한 일상들이 내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됐다. 의과장에 내게 써주신 추천서에도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다. “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내가 성형외과 수련의 과정에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를 낮 놓고 기다리기보다 직접 찾아가 그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묻고 듣다 보면 서서히 그들이 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문제가 있을 때에 담당의를 바로 부르고, 응급수술을 위해 수술실을 잡고 마취의에게 연락한다.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 곧 있을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간호사에게 운반용 침대를 가져와 줄 것을 부탁하니 돌아온 대답은 “이미 3번이나 불렀다”였다. 그대로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의 플러그를 뽑고 수술실로 향했다. 침대를 밀면서 때때로 어머니

## 지옥같은 수련의 생활 버티는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큰 도움

수련의 과정에는 정말 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생각만큼 잘하지 못하거나 포기하고 나간다. 의학은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하길 요구하고 수련의 과정은 긴 시간동안 일하며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지구력을 요한다. 뛰어난 두뇌와 근면함 둘 다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항상 근면함이 더 우선시된다. 환자들의 검사결과를 항시 체크하고 방사선의들을 쫓아다니며 보다 전문적인 소견을 듣고, 응급환자를 보기 위해 때때로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 근면함이 없이는 수련의 생활은 지옥과도 같을 것이다.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자신의 불행함을 주변사람들도 쉽게 느끼게 된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환자들은 고통받는다.

당직을 설 때엔 새벽 3시에 일어나 환자를 본다. 아주 끔찍한 느낌이지만 경각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 새벽 3시든지 오후 3시든지 환자는 환자이며 그들은 의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에게 언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에 꼼꼼히 상태를 살피고, 더 해야 할 검사가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전문의들의 소견도 물어야 한다. 방사선

와 도매시장을 돌아다니며 가게에 내놓을 소다와 맥주가 가득 담긴 카트를 끌고 다니던 때를 회상했다. 카트를 밀고 차에 싣고, 또다시 큰 카트를 이용해 짐을 내렸다. 마취의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준비시키는 동안 다른 의과과들에게 숙지할 사항들을 일러주고 간호사들이 수술실을 정비하는 것을 도왔다. 수술을 보조하고 끝나면 오전 5시 30분. 이제 아침 회진을 돌기 전까지 30분이 남는 것이다. 담당환자들의 아침 검사기록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하루를 또 시작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하루가 끝날 때 즈음 메일박스를 확인하면 환자의 운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항의편지를 받는다. 그들의 할 일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런 운반 관련 편지는 수도 없이 받았지만 새벽부터 그토록 괴롭혔던 방사선의들에게선 한 번도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케네스 김  
성형외과 전문의  
UCLA 의대  
외래 부교수

## 미국 대학원 이야기

# 합리적인 미국 총장 선출 제도



이기한 박사  
USC 교수  
USC Korea 대표

한국 대학에서는 총장 선출을 놓고 논란이 잦다. 대학교에 따라 직선제, 간선제 등 여러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총장을 선출하는 데, 일반적으로 이사회에 최종 선임권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영향력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 소규모 대학 중에는 이사회에서 총장을 직접 지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수 혹은 교직원까지 포함하여 투표로 후보를 정한 후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한국 대학은 교내의 현직 교수 중 총장을 뽑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총장 선출 방식은 한국과 사뭇 다르다. 우선 미국의 총장은 국내 및 국제적 채용 공고 (National/International Search)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은 국내외 부총장, 학장, 처장 등 자격이 주어진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 중에는 교내 현직 교수가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내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도 소수에 불과하다. 교내의 현직 교수들은 본 대학의 지향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원을 하지 않거나, 교내에 막강한 교수가 지원할 경우 다른 교수들은 지원을 포기한다.

선임 과정은 부총장, 처장, 학장, 교수, 교직원, 학생, 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총장선발위원회’를 형성하여 진행한다. 이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총장직에 관심이 없는 자로 구성된다.

선발 과정은, 대부분 1차적

으로 지원자들의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후보(Candidate)를 정하여 2차적으로 화상면접을 한다. 3차적으로는 보통 4명의 최종후보 (Final Candidates)를 상대로 캠퍼스 면접 과정을 실시한다.

약 2-3일에 걸쳐 실시되는 캠퍼스 면접 과정에는 일반 교수, 교직원, 사회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후보의 개방강의도 포함되지만 총장을 직접 면접하거나 투표할 수는 없다. 다만, 후보의 강의를 청강한 후 본인들의 소견을 총장선발위원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소규모 대학은 간혹 후보들의 신상 보호 (Confidentiality)를 보장해 주기 위해 캠퍼스 면접 대신 제3도에서 최종 후보들을 면접하는 경우도 있으나 흔치는 않다.

총장선발위원회는 최종후보의 장·단점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소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대학에 따라 총장선발위원회에서 ‘추천(Recommended)’ ‘비추천(Not Recommended)’으로 위원회의 견해를 밝히는 경우도 있으나 소수에 속한다.

미국의 총장 선출은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과정을 감독하고 후보를 추천한다. 최종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간혹 전혀 예기치 않은 후보가 이사회로부터 총장으로 지명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선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한국과 달리 미국 대학에서는 투표로 총장 선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풍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자의 대다수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편파적 성향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이 있는 것은 한국과 흡사하다. 주립대학일 경우에는 주지사가 최종 승인을 한다.

앞선 사람들의 신문 중양일보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구독문의 (213)368-2600



# WIN HYUNDAI

www.winhyundai.com

## El Monte & Carson




# Korean Dept Grand Opening 대세일!

**1,000불만 내시고**  
+D.O.F+Acq.Fee  
Fico score 700이상



**\$159**

**2015 New Sonata SE**  
MSRP \$22,085  
RESIDUAL \$14,188.80 with 12K miles  
On 3years closed end lease  
Drive-Off \$1,000  
+lic & doc, on O.A.C



**Stone Kang**  
**626-921-5832**  
3462 N Peck Rd, El Monte, CA 91731

**엘몬테와 카슨, 양쪽에서 모십니다.**  
중고차 Trade-In 환영, 중고차 고가매입, 노크레딧 융자환영



**Alex Shin**  
**877-216-6663**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No purchase necessary. Must be 18 or over with Valid driver's license. Offer available to customers who must 1. Test drive a vehicle 2. Complete Credit application 3. Complete write-up on a new vehicle purchase 4. Were not able to come to an agreement on a new car purchase. 5. Must bring printed email at time of write up. Not valid for those whose credit does not qualify for loan. Limit one per household. Offer applies to new vehicles only.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